

울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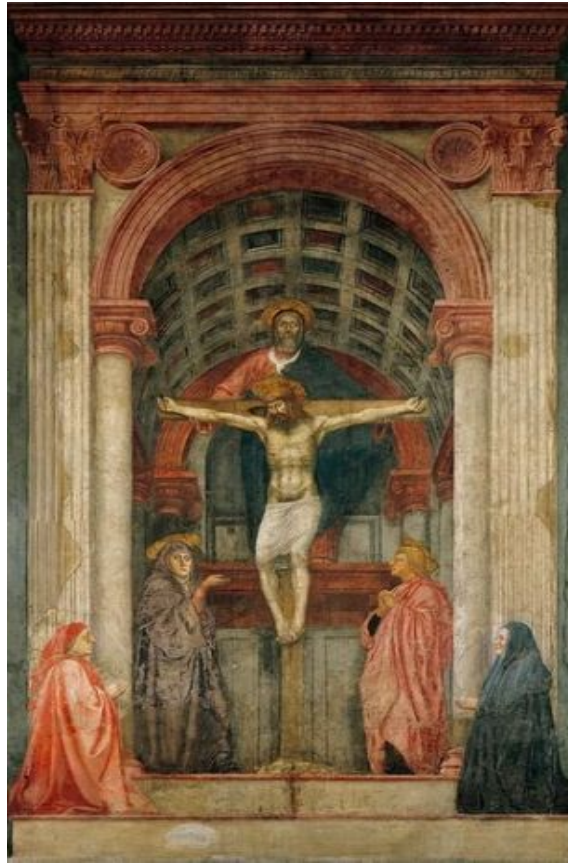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5년 6월 15일)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로마 5, 1-5)



Holy Trinity (Part), Masaccio, Fresco(1425-1427) Santa Maria Novella, Florence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 마사치오가 27세로 요절하기 1년 전에 완성한 프레스코 회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근법을 구사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원근법으로 표현된 깊이 있는 공간 안에 성부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계신 성자 예수님을 지탱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비둘기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오는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이, 그 아래에는 이 작품의 기증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요한 16,15)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소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성당, 저희 공동체는 미국이라는 이국땅에서 가톨릭 한인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 세상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한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한국 순교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가꾸어 왔습니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강인한 순교 영성은 이국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희는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식탁에서 받은 사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 본당 모든 교우들이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시작 성가로, 셀라 성가 1번 “삼위일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SCAN ME

삼위일체

1

Paullo Roberto

성 - 부 와 - 성 - 자 와 -

성 령 의 이 름 으 로 아 - - 멘 -

주 님 께 찬 - 미 와 감 사 와 경 배

를 드 리 러 - 여 기 왔 나 이 다 -

주 님 께 찬 - 미 와 감 사 와 경 배

를 드 리 러 - 왔 나 이 다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요한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5,1-5)

형제 여러분, 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요한 묵시록 21,4)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나의 이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AA2]
-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요한 13,32) 새교황님이신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되셔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레오 교황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AA2]
-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말씀으로 기도하며, 저희 반에서는 한 달동안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서로 사랑하여라”**를 선택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헌신적인 사랑의 모범을 따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CT]
-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요한 묵시록 21,4)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삶의 힘든 순간,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따뜻하게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며,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신앙의 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NV2]
- **“내가 모든 것을”** (요한 묵시록 21,5) 말씀으로 기도하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어린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NV2]
- **“새롭게”** (요한 묵시록 21,5) 말씀으로 기도하며, 20대였을 때 저는 새로워지고자 열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않은 저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을 통해서만 스스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며, 저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가꾸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통한 진정한 변화라는 것에 희망을 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NV2]
-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요한 묵시록 21,5)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반원 모두가 안드레아 형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NV3]
-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 묵시록 21,1) 긴 피정을 마치고 돌아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운전길에 마음이 갑자기 평화롭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미 나한테 다 주셨고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RC2]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 13,34)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많고 힘들어서 제 스스로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날카로움을 누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구절에 머물러 기도하며, 내가 과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 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RC2]
-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아이들이 성장해 모두 떠나고 남편과 단 둘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잔소리를 하고 사랑 표현은 잘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남편의 외모와 습관등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당에서도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불만이 쌓이고 미움이 싹트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2]
-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는 사랑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느님이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내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203번 ‘사랑한다는 말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03

사랑한다는 말은

이해인 글 / 박성훈 곡

Sheet music for the song "사랑한다는 말은" (The Word of Love). The music i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guitar accompaniment line. The lyrics are in Korean.

System 1 (Measures 1-28):

- Measures 1-4: A, A sus4, A, A sus4
- Measures 5-8: D, E7, A, A sus4, A
- Measures 9-12: A, Bm
- Measures 13-16: E7, AM7
- Measures 17-20: Bm, E, C#m, F#m
- Measures 21-24: D, B7/D#, Esus4, E7
- Measures 25-28: Bm, E, C#m, F#m

System 2 (Measures 29-56):

- Measures 29-32: D, B7/D#, Esus4, E7
- Measures 33-36: A, A aug, A6, A7
- Measures 37-40: D, B7, Esus4, E7
- Measures 41-44: D, E7, C#m, F#m
- Measures 45-48: D, E7, A
- Measures 49-52: Bm, E, A, F#m
- Measures 53-56: D, E7, A, D.S.

Lyrics:

속에서도 - 환히 빛나고 - -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 - 그 열
마나 놀랍고도 - 황홀한 고백 - 인가 -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
- - - - - 찢레꽃 - - - - - 사랑
한 - - - - - - - - - - - 한자락 바람에도 - - - - - 문득
흔들리는 - - - - - 나뭇가지 - - - - - 사랑
한 - - - - - - - - - - - 무수한 별들을 - - - - - 한꺼
번에 쏟아 내는 거대한 밤하늘이 다 - - - - - 어둠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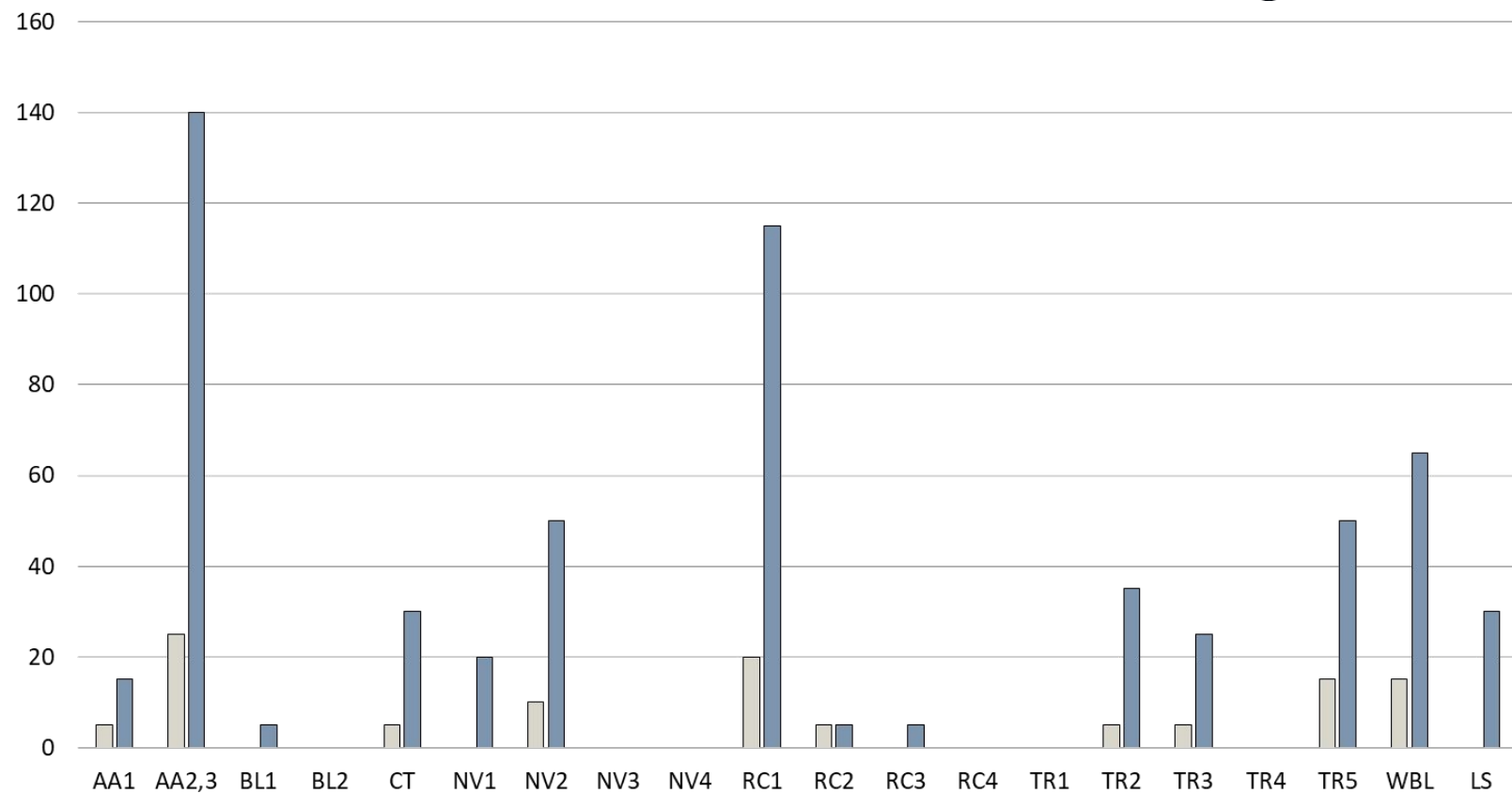
	미사봉헌	목주기도 (단)	본당50주년 기념기도문	영적묵상 (시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선행
MAY 2025	69	2040	99	45	82	86	76	28
누적합계	948	15734	1383	291	1873	1174	1063	240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반별 숙제 제출 현황

● 열왕기 상권
● 누적



매달 통독 분량을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별로 제출하시면 반별로 취합하여
숙제 한 건당 5점씩 반별점수로 11월에 열리는 성경잔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해진 양식의 종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sehoon9224@gmail.com)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2025 성경 공부

열왕기 상권 말씀과 함께

구약성서의 열한 번째인 열왕기 상권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의 통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이라는 대명사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 겸손하게 분별력과 순종적인 마음만을 구하였지만 하느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정치를 이어가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면들도 꽤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1열왕 2, 3)라는 하느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과의 계약으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함으로써 그 왕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스스로의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하느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겸손히 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린다면 놀라운 하느님의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부님의 강론 중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매 성경말씀을 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 글 | 고정민 엘리사벳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부모님들과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 하느님께서 엘리야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지쳐 쉬고 있을 때, 조용함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고요함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됨을 느꼈습니다.

— 글 | 김순복 프란체스카

열왕기 상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권력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간다는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통치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 진리를 어기면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 아는데도, 먹어봤는데도 자꾸 몰락의 길로 가는 인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탐욕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느님의 계명을 다시 한 번 새겨 보는 시간을 갖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서로 이해하고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글 | 유기돈 유스티노

하느님의 본질은 자신의 영, 마음 속에 있다는 신부님 말씀이 참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구약의 왕들이 어긋나는 이유가 그 본질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진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속 카메라가 엄청나게 줌 아웃되는 것처럼 갑자기 커진 앵글 속에 속 좁게 살고 있는 저를 보여 주십니다. 제 주제를 파악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오늘도 ‘네~~ 네~~ 또 제가 부족하죠’하며 흥분했던, 짜증 났던 저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느님께는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은 이유입니다.

— 글 | 배자현 마리아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일곱 해가 걸렸다.”(1열왕 6, 38)

“솔로몬이 열세 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1열왕 7, 1)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드우드를 바닥에 깔고 대리석 타일로 욕실을 꾸미고 켈츠탑 캐비닛을 부엌에 달고 지하실도 멋지게 꾸며서 헬스기구를 놓고 정원에는 꽃과 나무를 심고 잔디는 잡초 하나 보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당 안에서 나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없었는지, 이웃을 사랑하며 아무 조건없이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해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 속 주님의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 글 | 박소연 세실리아

열왕기는 솔로몬 왕 시대에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번영의 꽃을 피우지만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결국 주변 강대국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은 주 하느님을 배신한 왕정의 결과이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무시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는 우상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 계명이 이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신 바알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늘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기원 전 먼 옛날의 기록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우상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안위에 대한 욕망과 자자손손 자기 가족만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한 추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등 돌리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이웃의 상처를 외면하게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철저히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글 | 방성원 목사

열왕기 상권은 노쇠해 가는 다윗 왕의 왕자들의 왕위 쟁탈전 속에서, 밋세바와 나탄 예언자의 비밀 연합이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성공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절대 권력을 쥐는 데 성공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인물들을 등용하고 제도를 개편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힘과 부를 키워 갑니다. 큰 통일 왕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결국 통일 왕국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왕국 분열의 원인을 만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여러 왕들이 전쟁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가 그려집니다.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접해 오던 역사서와 구별되는 것은 저자가 신명기적 신학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붕괴, 이후 노예생활 등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의 관계 속에서 상선벌악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작가의 눈과 또다른 축을 이루는 것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상선벌악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희망을 찾기 어려울 때 도대체 하느님이 계실까 싶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 글 | 지연희 스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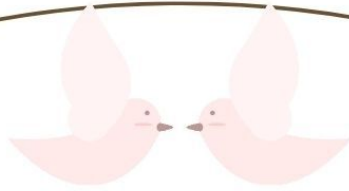
솔로몬이 집권 초반에 지혜(듣는 마음)를 하느님께 청하고 지혜를 비롯한 많은 복(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년에 그리 하느님을 잊고, 백성들이 하느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하느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하느님이 그 이후에 기름부어 세우신 왕들도 다들 별로인 듯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순박한 삶을 추구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유혹거리를 아예 피해 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런 자세로 살면 공동체는 누가 이끌어야 할까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아가 그렇게까지 극적이고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에도 그 기적을 직접 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 왕은 곧 그 기적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존재를 잊어 버립니다. 기적의 경험 자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걸까요?

— 글 | 백종석 마카리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1열왕 19, 13)

세상은 제게 ‘무엇을 하고 싶으냐?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너를 아끼고 돌보며 노력하면 너는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어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저는 한군데에 마음쓰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다면 온 마음으로 당신에게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다고 이리저리 좋다는 것은 다 찾아서 해 보지만 흡족하게 당신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리저리 당신의 진리를 헤매며 떠돌아 다닙니다. 조용하고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만나 주시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다면 머릿속으로는 저의 대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해 저의 목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로 대신해 버립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어 주님께 비오니 주님을 오롯이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해 주십시오. — 글 | 유명미 율리아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혼인 갱신식 — 부부 맺어주신 하느님 축복 ‘기쁨’으로 —

그동안 비 오고 흐렸던 날씨도 맑게 갠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21일 돌아가신 Francis 교황님의 혼인 강복장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 하듯이 하늘도 맑고 푸른 5월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성모님의 달, 마지막으로 싸인하신 교황님의 혼인 강복장을 받다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오는 9월이면 명동성당에서 루카와 헬레나가 손잡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성가정" 이루며 살겠다고 약속드린 지 54년 되는 해입니다.

뒤돌아보니 한순간에 지나간 54년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스치고 지나갑니다. 결혼하여 3년 되는 해에 미국으로 와서 새로운 곳에 동지를 틀며 귀여운 세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 모든 것에 적응하느라 날들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기쁘고 행복할 때, 힘들고 지칠 때, 더욱더 옷자락을 붙들며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며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날들도 오늘의 꽃향기 나는 봄바람처럼, 성모님 옷자락 같은 푸른 하늘처럼, 곁에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넘어지지 않게 서로의 따스한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1976년부터 함께 해온,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담긴 Detroit 성 김대건 공동체를 머지않아 떠날 예정입니다.

비록 루카와 헬레나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이란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루카와 헬레나의 집에서

2025년 5월 18일

김경선 헬레나

포토 앨범: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photo-zone/?uid=1280&mod=document&pageid=1>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Korean Parish Northville